

소년소녀가장 위한 4인4색 콘서트

바운스기획 신년콘서트 100분쇼 12일 전주한벽문화관 공연장서

소년소녀 가장을 돕기위한 신년콘서트가 오는 12일 오후 5시 전주한벽문화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사단법인 폭두가 주최하고 전주시의 연예 엔터테인먼트사 바운스기획(대표 김주원)이 주관하는 이번 소년소녀 가장돕기 신년콘서트는, 문화예술공연의 수익금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

이번 공연에는 가수 조승우, 이진, 주재연, 고현 등 지역내 인지도 높은 가수들이 재능기부로 출연하고, 하우스밴드 흥기총즈(베이스 천희철, 드럼 손태오, 키보드 박명선, 기타 송효철, 옐로 이대성)의 라이브 반주로 100분간 화려한 쇼가 펼쳐진다.

특히, 이카투스 무용단이 가수들과 함께 커버댄스로 출연해 콘서트의 볼거리를 선사하며, 티브로드 전주방송이 후원과 녹화방송을 하게 됨으로써 TV로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공연의 성격이 소년소녀가장을 돕기위한 행

사인 만큼, 사)전북연주연예인협회(회장 박영원, 주)프르밀, 한국노총 전주원주지역본부, 모악산전통민장(대표 조영인), 평화동 캐러비안회(회장), MR엔터테인먼트(대표 문병진), 진성ENG(대표 송재영), 유퍼스트전라지사, NEW패션박사, 내마음속보물상자(대표 김을중) 등 지역 내 민간단체와 업체들이 적극 후원했다고 전해진다.

김주원 '소년소녀 가장돕기 콘서트 100분쇼'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황금돼지해 새해를 맞아 주변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에게 관심과 작은 사랑을 나눠 주기위해 이번 콘서트를 기획했다"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비한 공연인만큼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콘서트의 티켓발매는 좌석번호 없이 정액 3만원에 현장에서도 발권 가능하며 후원금은 지역내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데 쓰여진다.

/송효철 기자



소년소녀 가장돕기 콘서트 100분쇼 포스터



남원 인월면, 이웃돕기에 이장단·주민 적극 동참

남원시 인월면은 지난 연말을 맞아 실시한 이웃돕기 성금에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해엔 12월부터 시작된 희망 나눔 이웃돕기 성금 모금에 인월면 이장단과 7명의 뜻있는 기부자가 적극적으로 이웃돕기 성금 모금에 참여하며 화제가 되고 있다.

인월면 이장단 일백만원, 지리산후배지 유통센터 일백오십만원, 인월지개차 오십만원, 이병선씨 이십오만원, 동무마을이장 장영두씨 일백이십만원, 지리산 IC 주유소 삼십만원, 영월사 일백오십만원, 인월백제약국 오백만원 등을 기탁하는 등 총 일천이백이십오만원이 모금되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을 통해 관내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등 총 71명에게 전달했다.

진명현 인월면장은 "평소 주위에 경제적 빈곤, 건강 악화, 실직 등으로 어려운 대상자가 많아 마을 간담회 및 자생단체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해 홍보한 찾아가는 촘촘한 맞춤형 복지 업무 추진 등이 위와 같은 실적을 거두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신평면 의용소방대-행복나눔협업체, 연탄배달 봉사

임실군 신평면의용소방대(대장 김왕식)와 신평면행복나눔협업체(위원장 손완진)는 8일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고자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의용소방대와 협업체 위원 12명이 참여해 신평면 호암마을 이종우씨가 기부한 연탄 400여장을 연탄이 꼭 필요한 소외계층 가구에 직접 전달하며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했다.

김왕식 의용소방대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완진 위원장은 "추운 날씨에 기꺼이 참여해주신분들에게 모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갖고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결혼

▲장성익(장영조 전북도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김순영씨 장남)군·박윤희(박진수·박미원씨 장녀)양= 일시: 1월 12일(토) 오후 12시 30분, 장소: 전주 그랜드힐스테이트빌 3층 세인트홀, 연락처: 010-5505-0066(장영조)



무주국유림관리소, 불철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가동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예년에 비해 25일 앞당긴 5월 15일까지를 '불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동절기에 맑고 건조한 날이 많았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황 발령되어 어느 해보다 동시다발 및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불철 산불방지대책본부(상황실)를 조기에 운영하여 산불에 대한 능동·적극적 대처 및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관내 5개 시·군(무주·진안·장수·남원·임실)의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전문예방진화대 등 약 63여명의 산불대응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여 감시와 예방활동 및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사전 제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와 논·밭두렁 소각과 같은 사소한 실수에서 기인한 인재"라면서, 예년에 비해 불리한 기상여건에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체계적인 산불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순창군 적성면 평남마을 김점옥 이장 이웃돕기 성금 기탁



순창군 적성면 평남마을 이장 김점옥씨는 최근 적성면사무소를 방문해 지역사회 저소득층을 위한 후원금 120만원을 기탁했다.

김점옥 이장은 "적성면에 살면서 평소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눔의 손길을 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 이웃을 함께 돌보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대해 진영무 적성면장은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해 주는 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소중히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순창읍 주민자치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성금 전달

순창읍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국)는 최근 순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용남, 김종국)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200만원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입금해 순창읍민의 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종국 주민자치위원장은 "기탁된 성금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매년 저소득층을 위한 떡국 나눔 행사 외에도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역사회를 이끄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순창=이왕원 기자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대표 이명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